“실상 자각하라…‘무소유’에 담긴 참뜻”

맑고향기롭게 · 길상사,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

인경 스님, ‘무소유’ 코퍼스 분석
고집멸도 기반으로 텍스트 분류
어리석음 관련 분류 빈도 가장 多
법정 스님이 경계한 건 ‘어리석음’
분석 바탕으로 ‘무소유 명상’ 제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원적 15주기를 맞는 법정 스님(1932~2010)의 사상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첫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는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재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명상상담 평생교육원장 인경 스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고집멸도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 발제를 통해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전통 수행론이나 심리치료 모델로 사용하는 ‘고집멸도에 기반한 코퍼스(Corpus) 접근방식’에 의거해 분석했다.

인경 스님의 분석에 따르면 고(苦, 고통의 경험) 단계에서 〈무소유〉는 개인의 애착의 고통보다는 물질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고뇌가 두드러진다. 집(集, 고통의 원인) 분석에서는 남방불교의 ‘갈애’ 개념보다는 북방불교의 ‘삼독심’ 개념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탐욕(탐심·욕심) 4회, 성냄(불쾌·짜증·화·원망) 16회에 비해 어리석음(무지·오해 등)은 32회에 달할 정도로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경 스님은 “법정 스님은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어리석음’으로 지목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편견적 오해, 고정관념의 얕은 지식에 갇혀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낸다고 진단했다”면서 “〈무소유〉의 진정한 메시지는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자각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소유〉 속 수필을 통해 고통의 소멸[滅]은 무지에서 벗어난 성찰에서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롭게 살아가기[道] 위한 방안으로는 ‘팔정도’와 ‘육바라밀’ 실천을 제시한다는 게 인경 스님의 설명이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는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법정 스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과 발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촬영.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인경 스님은 ‘고집멸도에 기반한 무소유 명상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님이 제안한 ‘무소유 명상’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고집멸도’ 구조로 만든 8회기 프로그램이다.

인경 스님은 “〈무소유〉의 핵심된 메시지는 ‘소유하지 말라’, ‘마음 비움’의 미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바로 보라’는 깊은 통찰에 있다”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고전적 수필이 아니라 현대인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명상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명상상담학과 부교수의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불교’,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의 ‘법정 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전개 과정’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평온과 활력의 비법

⑮ 응무소주이생기심

應 無 所 住 而 生 其 心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는 붓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부처든 중생이든 모든 생명체는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사유의 여섯 기관[眼耳鼻舌身意, 六根]이 그에 대응하는 감각 대상[色聲香味觸法, 六境]을 만나 감정과 마음의 표상, 의지를 실현한다. 감각 기관과 대상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쾌와 불쾌, 만족과 불만족, 사랑과 분노를 만들어 낸다. 불쾌·분노·증오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랑과 나눔조차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개입되면 갈애와 집착이 되어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 거친 줄로 묶이든 황금줄로 묶이든, 속박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붓다의 가르침은 자유와 평온을 지향한다. 그래서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이에 상응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 붓다는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應無所住而生其心).”

여기서 ‘머무는 바 없이’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도 마음이 묶이거나 갇히지 말라는 뜻이다. ‘마음을 내라’는 말은 자신의 뜻을 기꺼이 실천하라는 의미다. 전반부는 평온을, 후반부는 생기 넘치는 역동성을 상징한다. 이는 평온과 활력의 조화를 뜻한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묘행무주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풀이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나눔)를 행할지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은 보시이며, 소리[聲], 냄새[香], 맛[味], 감촉[觸], 마음 현상[法]에 머물지 않은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즉, ‘응무소주이생기심’의 가르침이 일상 속 실천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 그는 귀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대화를 나누었다. 탁발할 때는 거친 음식도 경건히 받았으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소연에도 성심껏 답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똥지게꾼에게는 ‘진정 향기로운 사람은 행위가 고결한 사람’이라 위로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뜻이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드러내기 쉽지만, 뜻이 다르거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피할 수 없다.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입견이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슬기롭게 마음을 다스려 껄끄러운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 편견과 집착으로 세상을 대하며 분노와 갈등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해외불교는 지금

유럽 유일 불교국가 칼미키야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인도 국립박물관 소장 진신사리 일주일간 친견

인도와 러시아의 문화 교류를 위해 유럽의 유일한 불교국가인 칼미키야 공화국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이운됐다. ‘더 힌두’, ‘인디아 뉴스 스트림’ 등의 외신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10월 13일 케샤브 프라사드 마우리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부주지사가 이끄는 인도 불교 대표단은 인도 공군의 특수 항공기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칼미키야 공화국의 수도 엘리스타로 이운했다. 이 사리는 인도의 국보로 지정된 근본 8탑 중 하나인 피프라흐와(Piprahwa) 스투파에서 발굴된 사리의 일부다.

현지 언론들은 “근본8탑에서 발굴된 사리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권의 불교국가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전하며 “사리가 공개되는 엘리스타의 황금사원에서부터 1km 가까이 사람들이 줄을 서 진신사리를 맞이하러 나왔다”고 현지 불자들의 열기를 전했다.

인도 문화부 관계자는 “이 행사는 인도 라다크 출신의 존경받는 고승이자 외교관이었던 19대 바쿨라 린포체의 유산을 지속시키고 쇠퇴한 부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2003년 인도에서 입적한 바쿨라 린포체는 생전에 출가자임에도 인도 국회의원과 주몽골 인도 대사를 역임했다. 특히 몽골 대사 시절에 공산화로 인해 파괴 직전에 몰린 몽골불교를 되살리고 더불어 칼미키야, 부랴트, 투바와 같은 러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중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도 엘리스타 최대의 사찰인 황금사원에 전시된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전시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순례자들이 사원을 참배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인도에서 불교대표단은 법회와 문화전시 등 다양한 불교문화 활동을 벌였다.

특히 국제불교도연맹(IBC)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성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불탑에서 발굴된 진신사리가 고대에 봉안된 이후 재발견되기까지의 여정을 추적하는 전시를 선보였으며, 인도 국립박물관 역시 소장 불교미술품의 일부를 전시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와 러시아 불교계는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도의 IBC 측 관계자는 “이번 행사와 양해 각서는 이 지역에 전해 온 불교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이러한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미키아는 유럽 대승불교의 중요한 중심지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칼미키야의 수도에 소재한 엘리스타 황금사원에 전시된 진신사리. **사진 출처=더힌두**

世界가 인정한 聖鐘社 명품 범종이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남해 부소암종 (중량 600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며, 범종계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종사 범종이
세계 최초로 입체조각기법을 범종에 도입하여, 한국 범종 수준을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현재 화천군민의 종(2000관) / 중국 남보타사종(1000관)을 본 기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입체감, 생동감, 화려함, 정교함을 자랑하는 성종사의 명품 범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